



양양소식

Vol. 271

11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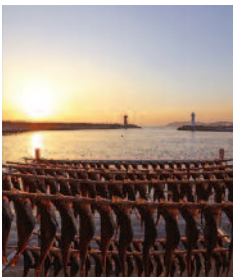


물치항 도루묵



양양연탄은행 연탄봉사

COVER STORY



물치항 도루묵



양양소식 · 271호

| 발행일 2017년 11월 25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소식

Vol. 271

CONTENTS

희망양양

- 04 테마스토리 물치항 비치마켓, 새로운 문화를 열다.
- 06 야양사람 사람이 가장 큰 희망이다.
양양군자원봉사대
- 08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
연암 박지원 부사가 남긴 교훈과 양양의 황장봉산
실태를 알아보다.

의기양양

- 10 이달의 군정소식
 - 10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문화재 관련 절차 종결
 - 12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 지역경제 견인
 - 13 양양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내달 착공
 - 14 양양읍 사천리, 현남면 포매리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선정
 - 15 구 동해고속도로 부지 용도폐지 및 이관
 - 16 서울양양고속도로 관문에 상징조형물 설치
화일리 환경자원센터 우회도로 개설 및 방음벽 설치
- 17 양양의 이모저모
- 18 의정소식
 - 18 제227회 정례회 개최

오감양양

- 20 이장통신 서면 송천리, 현남면 인구1리
- 21 이게 최고자니
겨울에만 맛 볼 수 있는 양양 도루묵과 양미리
- 22 양양에서 데이트 할까요
1년 동안 수고한 우리에게도 쉼표가 필요하니까

열린양양

- 24 책이야기 조선왕실의 백년손님 / 이달의 신간
- 25 정보꾸러미 11월 추천 일자리, 양양-제주 운항시간표
- 26 알림마당 공공기관 행정정보
- 28 공익광고 희망 2018나눔캠페인



양양군정소식지「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jsmj4@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물치항 비치마켓, 새로운 문화를 열다.

바람이 제법 찼던 지난 11일, 12일 이틀간 물치항은 모처럼 관광객들로 붐볐다. 평소에는 회 센터를 찾는 몇몇 관광객들과 항구에서 어망을 손질하는 어부들만 있는 한적한 항인데 비치마켓이 항구 안에 자리를 펴자 새로운 볼거리를 보기 위해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아온 것이다.

비치마켓은 잘 짜인 장터가 아니라 어구(漁具)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열린 장터이다. 사이사이 천막을 치고 양양지역의 농민들과 공예가들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과 수공예품을 가져와 판을 펼쳤다. 여기에 양평 문호리 리버마켓 참여자들이 각각 공예품과 먹거리 등을 펼쳐 이색적인 장터를 열었다. 항구에서 여는 비치마켓이 새로운 볼거리로 주목받았다.

비치마켓, 새로운 문화 장터를 꿈꾸다.

강현면 물치 지역은 1980년대까지 '물치시장'이 열렸던 곳이다. 양양 지역의 농산물, 물치항과 대포항의 수산물 직거래, 양양군과 속초시 간의 특산물 교환시장으로서 '물치시장'은 성행했다.

하지만 교통의 발달과 전통시장 집중화 등으로 시장 기능이 점차 사라져 지금은 시장은 서지 않고 항구 내 회 센터가 운영 중이다. 그러다 보니 물치항은 관광객들이 점점 줄어 한적한 항구가 되었다.

지난해 북양양IC가 개통되면서 물치리 일대가 관광과 교통이 편리해지고 있는 데다, 서핑인구가 늘면서 해변을 활용한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특색 있고 창의적인 주말시장을 열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옛 물치 시장의 전통을 이어서 양양지역의 청정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고, 먹거리, 도자기와 수공예품 등을 판매하며 체험활동도 할 수 있는 물치만의 독특한 감성을 담아 '물치 비치마켓'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강현면에서는 강을 따라 열리는 문화장터이자 놀이터인 양평 문호리 리버마켓을 지역주민들과 수차례 벤치마킹한 후, 물치항 만의 특성이 있는 비치마켓을 구상해 펼쳤다. 처음 여는 물치항 비치마켓에는 문호리 리버마켓의 참여자 30팀이 찾아와서 시작을 응원하며 다양한 볼거리를 보여주었다. 양평 문호리 리버마켓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데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





람들이 구경하려고 모여들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문호리 리버마켓을 기획하고 진행해온 문호리 리버마켓 안완배 감독과 문호4리 윤세기 이장은 문호리 리버마켓은 ‘지역의 상생과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요즘 농촌 지역은 농촌 중심 문화와 노인 중심의 문화로 한정돼 있어, 귀농·귀촌한 세대를 위한 문화가 없는데 더불어 살기 위한 공동의 문화로서 ‘리버마켓’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문화 장터, 신기하네요.

물치항 비치마켓은 농촌, 어촌의 주민들과 귀농귀촌 세대들이 더불어 상생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자, 관광지로 부활을 기대하며 시작했다. 지역주민들도 새로운 장터가 열려 기대가 크다.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나온 김양희씨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신기하고 재밌어요. 양양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관심을 보여서 좋고요. 앞으로 비치마켓이 잘 진행되면 계속 나오고 싶어요.”라며 기대를 보였다. 나무로 만든 스피커(wooden speaker)를 가지고 나온 목공예가 김태현 씨는 어머니와 함께 나왔다고 한다.

“한쪽에는 부모님이 직접 기른 농산물, 한쪽은 제가 만든 ‘우드 스피커’를 가지고 왔어요. 서울의 홍대나 연남동 플리마켓에도 자주 나갔는데 고향에서 마켓이 열린다고 해서 왔어요. 부모님 농산물도 알리고 제 작품도 알리는 좋은 기회인데, 자주 오고 싶어요.”

이번에 비치마켓에 나온 농민이나 공예가들은 기대는 크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에서 새로운 문화로 받아들이고 마켓을 운영하기에 공감대가 아직 부족한 것 같다는 평도 있다. 자율적이면서 더불어 살기를 위해 물치항 어민들과 상가 주민들, 또 마켓에 나오는 농민 등이 함께 비치마켓을 운영해야 하는데 고민도 많다. 지역주민들이 만드는 즐거운 마켓, 더불어 물치지역의 새로운 문화로 발전해가기 위해 지역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일이다.





사람이 가장 큰 희망이다

양양군 자원봉사대

때 이른 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마음까지 움츠러드는 요즘, 따뜻한 손길로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는 이들이 있다. 내 한 몸, 내 가족 챙기기에다 버거운 각박한 세상에 남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세상에 희망을 주는 양양군 자원봉사대를 만났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못하는 자원봉사, 양양군자원봉사센터에서 시작하세요

양양군자원봉사센터에는 90여 개의 단체에서 4850명의 회원이 등록해 지역에서 봉사정신을 실천하며 활동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양양군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자원봉사대학을 수료한 이들로 구성된 양양군자원봉사대는 지역 내 자원봉사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다. 목록, 이·미용, 수지침, 피부마사지 등의 과정을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자원봉사를 해오고 있는 자원봉사대는 올해로 14기 수강생을 배출하며 5백여 명의 회원들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해마다 진행하는 집수리 봉사와 연탄·쌀 나누기를 비롯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예요. 모두 생업과 자신의 시간을 뒤로 하고 짬을 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특별한 사람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못하는 게 봉사예요. 하지만 봉사를 시작하고 나면 대부분 꾸준히 하게 되니까 신기하죠. 자원봉사대 활동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자원봉사가 일상이 된 분들이에요.”



서중운 회장은 일이 바쁜 주말에는 생업에 열중하고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평일 시간을 쪼개 봉사에 나서고 있다. 의용소방대와 적십자 등에서 오랜 시간 자원봉사를 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봉사대를 이끌고 있다. 양양군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행사를 비롯해 축제·체육행사부터 집수리, 연탄 나눔, 쌀 나눔, 독거노인 재가 방문 등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간다.

내가 더 행복한 자원봉사, 자원봉사가 삶을 가치를 높여 줍니다

장미자 총무는 평소 자신의 삶에 만족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우연히 시작한 봉사활동은 삶에 대해 되돌아볼 기회를 주고 만족감을 주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될 줄 알게 됐고 주변을 살펴보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자원봉사대학을 수료한 기수별로 자원봉사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해서 말벗도 해드리고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면서 자신이 더 행복해진다고 말한다.

“집을 방문해서 봉사하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계를 쌓아가며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여는 일이 관건이거든요. 처음에 봉사 자체를 거부하시던 분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가까워지면서 저희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때, 그때 그 보람과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가 더 행복한 일이지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한 길을 걸으며 어려운 이웃들의 버팀목이 돼 온 양양군자원봉사대는 이제 봉사활동 자체가 일상이 되었다. 조그만 도움에도 한없이 행복해 하는 이웃들을 볼 때마다 더 행복감을 느끼기에 자원봉사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웃에게 희망을! 따뜻한 겨울을! 모두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자원봉사

제때에 과실나무 가지를 솎아주지 못해 발을 동동거리는 이웃, 어디부터 손을 써야할지 알 수 없을 만큼 막막한 자연재해를 겪은 이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 결국 그곳에서 희망이 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힘이다. 양양군자원봉사대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 현장뿐만 아니라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 달려갔다. 송이축제에서 현장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금을 연탄은행 후원금으로 내놓고, 매서운 추위를 앞두고 두려운 이웃에게 집집마다 연탄을 배달했다. 세상살이가 참 각박하다고들 하지만 많은 봉사자들이 곳곳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면,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 아닐까. 우리네 이웃에게 한 줄기 빛이 되고 따뜻한 위로가 되는 이들이 있어 절망보다 희망이 더 큰 세상, 양양군의 겨울이 따뜻하길 기대한다.

양양군자원봉사센터 672-1926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

연암 박지원 부사가 남긴 교훈과 양양의 황장봉산 실태를 알아보다.



황장목, 비변사인방안 지도, 패다리

연암이 양양에 부임할 당시 환곡(還穀)이 문란해 아전(衙前)들이 훔치고 포함(逋欠)하여 창고에는 한 톨 비축 없이 장부로만 있었다. 그럼에도 전임 부사들은 아전들의 횡포에 밀려 이를 어찌할 수 없었다. 이에 연암은 아전들이 스스로 포함한 곡식을 되돌리도록 하기 위해 “너희들이 걸핏하면 도망가 버리겠다고 한데, 참으로 딱하다. 고을 원이 할 일이란 군정과 전세와 환곡이거늘 창고가 텅 비어 있고서야 원은 두어 뭇 하겠느냐? 너희들이 달아나고자 한다면 모두 달아나라. 한 사람도 남아 있지 말고 모두 달아나라는 말이다. 나도, 벼슬을 그만두겠다는 장계를 올려 죄를 청한 다음 조정의 처분을 기다리겠다. 그러면 그만 아니냐?”하고 연암은 작은 방에 거처하면서 포함을 되돌리기 전에는 공무를 하지 않겠다고 엄명을 내렸다.

그 후 부사에게 녹봉이 들어오자 직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니 녹봉을 받기 부끄럽다면서 이를 포함한 환곡을 메우는데 사용토록 하였다. 이에 아전들은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고을의 부유한 백성들까지도 혹 비용을 내어 몇 달 만에 창고가 모두 채워졌고 이 후 비로소 동헌에 거처하며 공무를 살핍으로써 아전들의 포함을 막고 환곡을 바로 잡았다.



원일전리
황장금표
발굴



장리 황장금표 발굴



마을 답사



법수치리, 어성전리, 원일전리 황장금표

백성을 위해 청렴을 몸소 실천하였다.

조선 후기에 박종채(朴宗采)가 지은 잡록인『과정록(過庭錄)』에 의하면 양양에는 벌목을 금하는 황장목(黃腸木) 숲이 꽤 많았다. 매번 조정에서는 감독관을 파견해 황장목을 베게 했는데 양양부사에게는 으레 사사로운 이익이 많이 떨어졌다. 비록 청렴한 수령이라 할지라도 황장목을 남겨 훗날 자신의 장례 때 쓰게 하려 했다. 연암이 양양에 부임하자 친지들은 황장목이야기를 자주 했다. 그러나 연암은 이를 듣고도 못 들은 척하였다. 후일 나의 장례 때 황장목을 쓸 생각을 한다면 이는 내 뜻을 크게 거스르는 일이다. 황장목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벌목되어 대궐에 진상되었다. 그러나 진상하고 남은 널빤지들이 온 고을에 낭자(狼藉)했다. 아전들이 이 사실을 보고하자 연암은 아무아무 곳 시냇가에 옮겨놓으라고 하였다. 모두들 그 영문을 몰랐다. 며칠 후 몸소 그 시냇가에 가서 말했다. “여기에 다리가 없어 사람들이 다니는 데 괴로워한다. 이 나무로 다리를 놓으면 몇 년은 편리하게 지낼 수 있을 게다.” 그리하여 널빤지를 깔아 다리를 설치하였다. 그 후 연암이 돌아가셨을 때 유언에 따라 해송으로 만든 널을 썼다. 그걸 보고 경탄(驚歎)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황장봉산의 보전실태를 알아보다.

조선왕실에서 주로 관곽재(棺槨材)와 궁궐 건축에 쓰일 목재를 확보할 목적으로 황장목을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금령(禁令)이 내린 산을 황장봉산(黃腸封山) 또는 황장금산(黃腸禁山)이라고 한다. 그리고 주로 임금의 관을 만드는 데 쓰는 질이 좋은 소나무를 황장목(黃腸木)이라고 하는데, 이 황장목을 금양(禁養)하는 산의 경계표시를 이르는 말이 황장금표(黃腸禁標)이다.

조선 후기 김정호(金正浩)가 편찬한 전국 지리지인 대동지지(大東地志) 양양부 토산편에는 황장봉산이 두 군데 있다고 했다. 법수치리 방향의 부연산 봉산은 둘레가 300리 이고, 갈천리 방향의 전림동 봉산은 둘레가 350리 로 기록되어 있다. 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소는 지난 2013년 기존에 확보한 문헌과 구전자료를 바탕으로 양양지역의 금표의 분포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총 5개소(오색리 금표, 장리 금표, 원일전 금표, 어성전리 금표, 법수치리 용화사 금표)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황장금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조선시대 국가지정 황장봉산 2개소와 금표 각자(禁標刻字) 5개소가 확인됨으로써 전국에도 흔치 않은 일로 명실상부한 황장목의 고장으로서 긍지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귀중한 문화재가 각종 개발로 인해 훼손되어 현존하는 황장금표 각자(刻字)가 한곳도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글·사진 : 양양문화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문화재 관련 절차 종결 문화재청, 지난 11월 24일 '문화재 현상변경 최종 허가서' 발송

14가지 허가조건은 이미 계획에 반영하거나 준비된 것으로서 이행에 문제 없어,
환경영향평가 보완서 등에 담아 성실히 실천할 계획

우리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문화재 관련 인허가 절차를 종결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11월 24일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과-7862호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외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우리군이 신청한 현상변경허가에 대해 조건부 허가함을 통보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2015년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뒤 본격적으로 추진돼 왔으나 지난해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 양양군의 행정심판 청구와 인용결정, 그리고 다시 문화재위원회 재심의로 약 1년간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 공문에 따르면 서면 오색리 산1번지 일원 오색리~끝청간

3.5km에 1선식 자동순환식 삭도 8인승 53대를 설치하는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허가했다.

아울러 공사 시 이행조건 8가지, 삭도운행 시 준수사항 4가지, 공사 중 또는 공사 후 5년간 모니터링 2가지 등 총 14가지의 이행조건을 제시했다.

위의 14가지 최종 조건은 대부분 우리군이 그동안 이미 계획에 반영했거나 계획 수립한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조건 이행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으나 보다 세밀하고 명확하게 분석하여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반영하는 등 성실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요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본안 통과와 그 외 남은 절차를 누수 없이 진행해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으로서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치밀한 분석과 대응논리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 결정 이끌어, 1년 여 간 상경집회 등 군민들의 결집된 의지와 역량이 이룬 쾌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부결('16.12월) → 행정심판 청구('17. 3월) → 행심위 인용 결정('17.6월)
→ 문화재위원회 개최 및 상경집회('17. 9월, 10월) → 최종 허가('17. 11. 24)

문화재청의 허가서가 최종 통보됨으로써 우리군은 1년여 동안 끌어왔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 하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본 궤도에서 추진한다.

14가지 세부조건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과 환경단체의 주장 등을 충분히 반영해 한치의 누수없이 조건을 이행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환경영향평가는 보완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마무리한 뒤

백두대간 개발행위, 산지일시사용허가, 국유림사용허가, 공원사업 시행허가 등 16개 개별 인허가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갈 계획이다.

2018년 12월까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방공기업 설립 등 준비를 마친 후, 2019년 1월에 착공해 2020년 말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오색삭도추진단 삭도행정담당(670-2530)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허가번호 :				
허가받는자	성 명 양양군수			
	주 소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행리 8번지			
대상 문화재	종 류	천연기념물	지정(등록)번호	제171호
	명 칭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소재지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허가 사항	개 요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외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		
	위 치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 1번지 일원 (문화재구역 내외)		
	내 용	○ 오색삭도 설치 : L=3.5km(오색리~끝청), 중간지주(6개소) ※ 삭도형식 : 1선식 자동순환식(8인승, 53대) 1) 상부정류장 - 건축면적/연면적 : 952.25㎡ / 968.11㎡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최고높이 12m)		

「문화재보호법」 제36조·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현상 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생략

2017.11.24.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7862호로 통보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서 사본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견인 올 한해 6개 종목, 12개 대회에 선수·임원 1만 1,700여명 다녀가

2018 강원도민생활체육전 · 2019 강원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 2020 도민체전 개최

우리군이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각종 체육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하면서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우리군은 올해 13개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해 모두 1만 1,700여명의 선수와 임원, 가족 등이 지역을 다녀갔다. '자전거의 고장'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그 중에서도 자전거·사이클 종목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난 5월 개최된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자전거부문 경기를 시작으로 이달 18일 진행된 오색 한계령 힐클라임대회까지 6개 대회에 3,000여명의 선수단이 참여했다.

사이클 종목의 경우 본 경기에 앞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가까이 현지훈련을 진행하면서, 선수와 임원이 대회장 인근에 체류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기 부양효과가 높은 편이다. 이밖에도 1월 진행된 리틀 K리그 유소년 축구대회를 통해 1,000여 명의 선수단이 일주일 정도 지역에 체류했으며, 송이 축제를 기념해 개최된 강원도 배드민턴대회에 1,900명, 2차례 치러진 궁도대회에 800명이 지역을 방문했다.

국내 최고의 서핑대회로 자리매김한 죽도해변 양양서핑페스티벌에도 참가선수를 비롯해 관광객 4,000여 명이 방문해 서프시티(Surf City)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올해는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사이클과 축구, 야구 등 다양한 종목에서 총 24차례 3,200여명의 선수단이 지역을 방문하는 등 전지훈련 유치 성과도 좋았다.

적극적인 시설 투자로 스포츠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데다, 상

대적으로 기후가 온화하고, 숙박시설과 음식점,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이 풍부한 점에서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내년에는 도내 1만여 명의 생활체육인이 함께하는 제26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보다 많은 인원이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우리군은 2020년에 개최되는 '제55회 강원도민 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이달 초 강원도체육회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도민체전까지 유치에 성공하게 되면, 내년 9월,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와 이듬해 4월,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이어, 2020년 강원도민 체육대회까지 3년 연속 도 단위 종합체육대회를 양양군에서 개최하게 된다.

우리군은 종합체육대회 유치로 인프라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보다 많은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의 : 문화관광과 체육진흥담당(670-2731)



양양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내달 착공 사업추진 위한 모든 행정절차 완료, 11월중 조달청 계약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원도 하천관리위원회 심의 통과
100년 빈도 홍수에 안전하도록 제방 보강, 하도 정비 및 공간 관리계획 정밀하게 수립

우리군이 하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양양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착공된다.

우리군은 지역의 젖줄인 남대천을 치수·이수·환경·문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하천으로 육성하고자 지난해 5월부터 양양남대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하천정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으며, 기본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협의, 주민설명회, 강원도 하천관리위원회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수립된 양양남대천 하천기본계획은 지난 2011년 수립된 남대천하천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서, 남대천 전 구간이 100년 빈도 홍수에 안전하도록 제방 보강, 하도 정비, 하천환경 계획과 공간 관리계획을 정밀하게 수립했으며 재해예방과 맑고 건강한 자연하천을 유지, 공유할 수 있도록 수립됐다.

양양남대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남대천지방하천 정비사업에는 국비 125억원을 포함해 모두 250억원이 투입되며 양양을 서문리 후천 합류부에서 양양을 조산리 해안선까지 5.2km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침수빈도가 높으나 제방이 없는 2개소 0.8km 구간은 제방을

축조하고, 여유고와 독마루푼이 부족한 기존 제방 4개소 1.65km를 보강한다. 고수부지 내 시설물 보호를 위해 2.45km 구간에 저수호안을 설치하고, 유속변화가 심한 4.74km에 대해서는 자연형 고수호안을 설치한다. 깎지, 두거리, 칠성장어 등 토속어종의 서식과 자연 생태계 보호를 위해 셋강형 수로 3.26km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생활레저 공간으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4.64km를 설치한다. 또한 하천 내 25,443㎡에 대해 지장목 제거와 퇴적물 준설 등 하도 정비를 실시한다.

양양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계약 심의단계에 있으며, 오는 20일경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 사업자가 선정되면 12월중 착수해 2019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다. 우리군은 양양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수해를 선제적·항구적으로 예방하고, 남대천을 생태관광과 문화축제, 경제가 순환되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남대천 하구 수상레포츠 체험공간 조성, 전통시장 다목적광장 및 웰컴센터 건립, 남대천 수계 보 철거, 토속어종 방류, 남대천 순환도로 개설 등을 함께 추진해 양양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의 : 안전건설과 하천관리담당(670-2752)



양양읍 사천리, 현남면 포매리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선정 소득분야 사업비 3억원씩 지원

사천리 단호박 체험마을, 포매리 친환경 기능성 아로니아 쌀 육성 계획
공동소득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춰나가도록 행정지원 계획

양양읍 사천리와 현남면 포매리 등 양양군 2개 마을이 소득 분야에서 '2017년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로 각각 선정돼 지난 14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는 '2017년 강원도 농어업 대상 및 기업형 새농촌 우수마을 시상식'에서 수상했다. 기업형 새농촌 사업은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귀농귀촌인 증가, 마을별 역량 격차 심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마을별 맞춤형 농촌개발사업이다.

올해는 도내 18개 시·군, 39개 마을을 대상으로 서류검토와 평가단 현장평가를 실시해 총 29개 마을을 사업대상지로 확정했다.

선도마을에는 2억원의 사업비가, 도약마을에는 3억원의 사업비가 각각 지원되며, 도약마을의 경우 선정 3년차에 지속가능성과 실현성 등을 종합평가해 2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양양읍 사천리(대표 박상형)는 지난 2005년 발생한 낙산사 대형산불로 마을의 90%가 화재로 소실된 마을로서 이후 10년 동안 마을재건에 힘써 왔으나, 농업 외에는 특별한 자원이 없었기에 새로운 소득원 개발이 당면과제였다.

이에 주민들은 마을 유휴지 7,000평에 단호박을 공동으로 심고, 관광용 터널을 조성해 농외자원으로 키워나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사래마을 단호박 축제'를 개최해 단호박으로 스프와 식혜, 막걸리 등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하는 등 6차 산업

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사천리 마을은 도약마을 사업비를 단호박 가공제품 개발, 마을 특성을 담은 조형물 설치, 단호박 재배단지 조성사업 등에 투자하고, 마을주민을 중심으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 기업형 마을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현남면 포매리 마을(대표 조오행)은 동해와 맞닿은 석호 '매호'가 위치한 마을로 친환경농법으로 경작한 '해풍 맞은 친환경 기능성 아로니아 쌀'을 마을의 대표자원으로 육성하고 있다. 적당한 해풍과 친환경 농업기술로 마을 내 32ha에 이르는 논에서 생산되는 쌀은 최고의 밥맛을 인정받고 있으며, 2ha 규모로 생산되는 아로니아를 접목해 '기능성 아로니아 쌀' 시제품 개발을 완료해 놓은 상태다.

올해 도약마을로 선정됨에 따라 내년도에 기능성 쌀 가공 제조시설 설립을 위한 마을 공동부지를 매입해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매호에 생태전망대를 조성하는 등 관광자원을 개발해 농촌관광마을로 거듭난다는 전략이다.

우리군은 사천리와 포매리가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공동소득 창출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농촌마을로 경쟁력을 갖춰나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의 : 농업정책과 농촌개발담당(670-2336)



2017 사래마을 단호박 축제



포매리 아로니아 수확

구(舊) 동해고속도로 부지 용도폐지 및 이관 속도 사용수익허가 및 매각은 국유재산관리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전담

임야 등 1차분은 12월중 이관, 나머지 일반경작지는 내년 6월까지 소유권 완전 이관
행정재산 381필지 237km²를 제외한 일반재산 719필지 1,432km²가 이관 대상

우리군이 구 동해고속도로 부지에 대한 토지현황조사를 마치고 용도폐지 및 이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976년 건설부(현 국토교통부)는 해안선을 따라 고속도로를 건설할 목적으로 구(舊)동해고속도로 부지를 도로구역으로 지정했지만 2009년에 새로운 노선으로 사업을 추진하

면서 2015년 3월 옛 동해고속도로 부지가 실효 고시되었으며, 양양지역 1,188필지 1,808km²가 해제됐다.

이중 구가·농수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79필지 69km²는 이관 대상에서 배제되었고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책사업 대상지 38필지 69km²는 지난 2016년 7월 우선 매각 처리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용수익허가 및 매각에 대한 지침 마련 및 시행 우리군,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각종 정보 제공 및 자산관리공사와 공조체제 유지

우리군은 40여 년 간 고속도로 부지로 묶여있던 지역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1,101필지 1,668km²를 대상으로 토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류를 완료했다.

마을진입로와 경작로 등 공공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 381필지 236km²는 재산이관 없이 보전·관리하고,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719필지 1,432km²에 대해 용도폐지 및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재산 중 임야 189필지 367km²는 12월에 이관이 완료되며, 지역주민들이 농경지 등으로 이용해 온 일반 경작지 530

필지 1,065km²는 내년 6월까지 이관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소유인 구 고속도로 부지가 용도폐지 되면 소유권이 기획재정부로 이관되며, 이관된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및 매각은 기획재정부의 재산관리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관리법에 의거 전담하게 된다.

우리군은 이관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용수익허가 및 매각 추진 시 그동안 고속도로 부지로 인해 주민들이 겪었던 불편과 토지이용 제한에 따른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정보제공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도 긴밀히 협조해 주민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관문에 상징조형물 설치한다

홍보조형물 디자인설계 공모 후 내년 설치



우리군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대외인지도를 제고해 나가
기 위해 양양JCT 주변지역인 양양읍 임천리 387-2번지에
양양을 대표할 수 있는 홍보조형물을 설치한다.

홍보조형물이 설치되는 곳은 상수도사업소가 위치한 석성
산 서측 비탈면으로 서울양양고속도로에서 양양JCT 방향으
로 진입 시 정면으로 조망이 가능한 지역이다.

군은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석성산까지 가시거리를 고려
해 폭 70m, 높이 17m의 대형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11월27일까지 응모한 업체를 대상으로 당일 현장설명회를
실시했으며 내년 2월 9일까지 작품도판과 설계제안서, 설계
도면 등 결과물을 접수할 계획이다.

양양만의 상징적인 요소를 활용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독창
성 있는 디자인, 주변경관과의 조화, 조형물 구조의 안정성
및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상작을 선정할 계획으
로 최우수작품 선정자에게는 설계용역권이, 우수작품(1점)
과 장려작품(2점) 선정자에게는 각각 400만원과 20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군은 입상작 선정이 마무리되면 최우수작 수상업체와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
침이다.

우리군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도시 관문이 된 양양
JCT 인근에 창조성과 예술적 가치를 담은 작품을 선정, 지
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 기획감사실 기획담당(670-2101)

화일리 환경자원센터 우회도로 개설 및 방음벽 설치

환경자원센터에서 국도·고속도로 우회 유도



군 환경자원센터 인근마을인 양양읍 화일리, 거마리 마을 일
대의 대형 중장비 차량운행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회도로를 개설한다.

화일리와 거마리 등 환경자원센터 인근마을 주민들은 환경
자원센터를 출입하는 청소차량과 골재채취장, 레미콘 공장
등을 운행하는 대형차량 등이 마을 안길을 경유함으로써 안전
사고의 위험은 물론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고통을 호소해
왔다.

이에 군은 대형차량이 마을내로 진입하지 않고 우회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환경자원센터에서 군도1호선까지 연결되는
길이 900m, 폭 7m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현재 이 도로는 폭 3m의 노후도로로 차량 교행이 되지 않
아, 농로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군은 11월초, 4천
7백만원을 투입해 환경자원센터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실
시설계용역을 발주했으며, 내년 2월 사업을 착공해 9월까지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자원센터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대형차량들은 수상리
도로를 통해 구·신 44번 국도나 고속도로 양양JCT 진입이
훨씬 용이해진다. 이와 함께 화일리 주민들의 차량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천만원을 투입해 양양읍
화일리 마을도로 방음벽 설치공사를 추진한다.

설치구간은 주택이 밀집돼있는 마을 진입부와 회전부 100
여m 구간으로 반사형 및 혼합형 방음벽을 설치할 방침이다.

문의 : 환경관리과 시설운영담당(670-2383)



사진으로 보는 양양의 이모저모

- 1 손양면 복지협의회(회장 문재한)
사랑의 땀감나누기 행사('17.11.24.)
- 2 화합과 결속, 한마음으로!
제4회 양양군 이·반장 한마음대회('17.11.7)
- 3 여성농업인 김치나눔 행사('17.11.3.)
- 4 양양교육도서관, 우리동네 인문학('17.11.4.)
- 5 제1회 양양 오색 한계령 힐크라이대회('17.11.18.)
- 6 축하합니다. 농업인 대학(친환경농업)졸업식('17.11.2.)
- 7 손양면 주민자치위원회 지역발전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호평동 방문('17.10.30.)
- 8 나의 꿈을 펼치다~! 청소년 종합예술제('17.11.19.)





양양군의회 제227회 정례회 개회

2018년도 본예산,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심의

우리군의회(의장 이기용)는 11월 20일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열고 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본예산 및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무집행을 감시 견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평가와 대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군정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사용되었는지 등을 중점 심사할 예정이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된 조례 2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 24건 등 총 2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 11월 21일부터 8일간 군정 전반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양양군의회는 지난 10월 23일 제22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김정중의원, 간사에는 최홍규 의원이 선출되었다. 행감특위 활동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51일이며, 활동 기간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우리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견제하고 예산을 비롯한 주요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의정활동



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김정중 위원장

군정발전과 각종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실과소장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검토 및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고제철 위원

최근 남대천하구에서 시가 발생되었기에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마을회관의 전기 안전 점검 및 소방시설 점검, 화재대피 훈련 등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들을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최홍규 위원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관광객의 증가되고 있으므로 우리군에서 좀더 체류하면서 즐길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하며, 서핑의 메카로서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유소년들의 발굴에 다각적인 노력을 요구하였다.



오한석 위원

주민교통 편의를 위해 권역별 마을버스 도입 검토를 당부하면서 기본계획 수립 시 꼭 포함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당부하였다.



진종호 위원

현재 양양군 푸드트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전통시장 부근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규제 완화를 통해 푸드트럭 확대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마을별 방송장비 보급 관련,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영자 위원

양양군만의 차별화된 관광홍보 안내책자 개발 등 다양하고 특성화된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을 요구하였으며, 오색단풍철에 주차시설 부족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므로 근본적인 교통난 해결책을 주문하였다.



이장통신

우리 마을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마을이장님!
이장님을 통해 마을 소식을 듣고 주민들과 공유하는 코너, 이장통신.
우리마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서면 송천리 (김성완 이장님)~

송천떡마을에 좋은 일이 있다면서요?

제~이번 우리 송천떡마을의 가공시설이 최신화 되었답니다.

어머니들께서 떡만드는 작업이 많이 편해지셨겠네요~

네~그럼요!! 이번 현대화사업을 통해 오래된 기계를 교체하고 공정별로 쉽게 일할 수 있도록 칸막이도 설치했답니다. 또한 바닥, 천정, 창호 교체등 시설의 반자동화로 앞으로 떡 만들기가 좀 더 수월해질거 같습니다.

이번사업으로 송천떡이 더 유명해 지겠네요~!

그럼요~! 이번에 개선된 제조시설을 바탕으로 우리 송천떡을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인증을 추진하고, 대형마트와 백화점까지 판매망을 확대해 볼 계획입니다.



우와~정말 멋지십니다~!!

현남면 인구리 (전영재 이장님)~



우리 인구1리마을에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한달 동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뇌 활성화 프로그램 교육을 받았답니다.

아~보건소 교육 말씀이시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나요?

네~!보건소에서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검사와 치매예방을위해 다육이화분만들기, 팔찌만들기, 뜨개질, 볼링게임, 뇌활성체조 등을 8회차에 걸쳐 가르쳐 주시면서 치매예방교육을 해주셨답니다.

어머니들의 참여도가 높았다던데 교육 후 만족도는 어떤가요?



매수업마다 너무 즐거워하셨습니다. 종강되었지만 화분만들기, 팔찌만들기 등의 취미생활도 겨울동안 계속 이어하시고 싶어하시며,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육 많이 만들어주세요!!

네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 많이 개설할게요~!^^

이기(이게) 최고자니!

겨울에만 맛 볼 수 있는 양양 도루묵과 양미리



지금 놓치면 '말짱 도루묵'

1년을 기다려 도루묵의 계절이 돌아왔다. 양양의 항구는 동해 먼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기를 맞아 알을 낳기위해 돌아온 도루묵으로 한창이다.

도루묵은 산란을 준비하는 시기인 겨울철 살이 오르고 기름져 이때 잡힌 것이 가장 제맛을 낸다고 한다. 특히 산란을 앞두고 알이 가득 들어찬 알도루묵은 그 맛을 최고의 별미로 친다.

참숯에 구워야 제맛이라고 하지만 도루묵 찌개와 조림 또한 한 겨울 별미로 친다.

양양 5일장에게면 만원에 한 소쿠리를 담아 올수 있기에 저렴하게 푸짐한 밥상을 차릴 수 있는 겨울철 효자 생선이다. 대파와 무를 썰어 칼칼하게 끓여낸 도루묵 찌개와 국물을 자박하게 졸여낸 도루묵 조림은 밥 한공기를 푹딱 먹게 만드는 밥도둑으로 오독오독, 미끈미끈한 알을 먹는 재미 또한 한가득이다. 요리 전 도루묵을 소금물에 담가두면 살이 탄탄해지고 불순물도 간단하게 제거되며 요리가 번거롭지 않고 열량도 낮아서 많이 먹어도 부담되지 않는다.

맛칼럼 리스트 황교익이 죽기전에 먹어봐야 할 101가지 음식으로 뽑았을 만큼 겨울에는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이다.

빠 짜 먹어야 제 맛 양미리

겨울이 되면 도루묵과 함께 맛봐야하는 생선이 있다. 양미리라고도 불리며 빠짜 소금구이로 구워먹으면 별미인 양미리이다. 도루묵이 오독오독 알을 씹는 재미라면 양미리는 입안에서 사르르 부드러운 크림과 같이 녹아나는 맛을 느낄 수 있다. 도람통에 웅기 종기 모여 소주한잔 기울이며 구워먹던 추억의 생선 양미리는 고단백, 고칼슘 식품으로 저렴하고 작은 크기에 비해 영양이 아주 풍부하다. 손질이 쉬워서 다양한 요리로 활용할 수 있으며, 겨울철 꾸덕꾸덕하게 말려놓은 양미리는 1년 내내 보관하여 볶음, 조림, 찌개 등으로 먹을 수도 있다.



올겨울 양양에서 겨울별미 도루묵과 양미리를 즐기세요~!!

본격적인 도루묵철을 맞아 양양의 항구들은 도루묵이 한창이다.

강현면 물치항에서는 12월9일, 10일 2일간 물치비치마켓에서 갓 잡아온 싱싱한 도루묵을 선보일 예정이기도 하다.

미식가들은 초겨울 알이 꽉 찬 도루묵과 양미리를 먹기위해 1년을 기다린다고 한다. 이번을 놓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맛 볼 수 있는 별미, 바로 도루묵과 양미리이다. 이번겨울 양양에서 도루묵과 양미리의 제맛을 느껴 보자.



1년 동안 수고한 우리에게도 쉼표가 필요하니까



남아있는 달력이 팔랑팔랑 가볍다. 한 해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음을 깨닫는다.
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이 남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함께 동고동락하며 일해 온 직장 동료의 지친 어깨를 두드리며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어진다.
그래, 우리에게도 쉼표가 필요한 것 같다. 잠시 일손을 놓고 동료들과 함께 행복한 일탈을 꿈꾼다.



자연 속 아름다운 쉼표 글램핑&데크캠핑

‘쉼, 휴식’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한가로운 자연 풍광을 떠올린다. 새로운 장소에서 일상과는 다른 시간을 만남으로써 마음을 환기시키고 활력을 충전해 간다. 그런 점에서 야외에서 즐기는 캠핑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쉼표이다. 양양송이밸리자연휴양림 내에 자리한 하늘캠핑장에는 작은 연못을 끼고 글램핑과 데크캠핑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어 자연 속에서 힐링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캠핑 준비가 번거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도구가 모두 갖춰져 있는 글램핑이 제격이다. 숲으로 둘러싸인 캠핑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밤하늘 별빛 아래에서 두런두런 담소를 나누며 일터를 벗어난 곳에서 마음을 터놓고 편안한 시간을 가져도 좋다.

TIP

캠핑장 주변에 펼쳐진 숲 속 산책로를 따라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삼림욕을 즐겨보세요.



스트레스를 뒤로 하고 활활 쏘라인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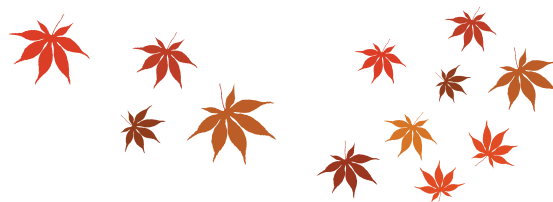
그동안 쌓인 직장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에는 흥미진진한 익스트림 스포츠만한 것도 없다. 쏘라인 체험으로 하늘을 나는 짜릿한 기분을 만끽해보자. 쏘라인은 남미나 코스타리카, 하와이 등지에서 원주민들이 밀림을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로프를 걸어 타고 다니던 것이 아외레포츠로 발전한 것이다.

양양송이밸리자연휴양림 내에서 즐기는 쏘라인은 580m에 이르는 활강 구간을 따라 설악산과 동해의 풍광을 배경으로 날아 내려가는데 몸을 'L'자 형태로 안정감 있게 탑승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국내 최초로 '하늘나르기'로 불리는 엎드려 타는 탑승형태도 가능하여 더욱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룩장까지는 '숲 속 기차'라는 이름의 모노레일을 타고 이동하는데 코앞에서 펼쳐지는 숲의 정취를 마음껏 느껴 보는 시간을 선사한다.

TIP

캠핑장 및 쏘라인 이용문의 : www.lepovalley.com / 033-673-2468



바비큐 파티의 최강자 양양 한우

캠핑의 꽃은 단연 '바비큐' 파티이다. 육지와 바다, 산에서 온 다양한 식재료들이 뜨거운 그릴 위에서 먹음직스럽게 익어가는 모습에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핀다.

바비큐 파티의 최강자로 역시 소고기를 빼놓을 수는 없는 법. 고소하고 담백한 풍미를 자랑하는 양양 한우를 올려보는 건 어떨까? 설악산의 신선한 공기와 깨끗하고 맑은 1급수의 물을 마시고 자란 양양 한우는 생산에서 판매까지 엄격한 관리를 통해 최상의 품질을 자랑한다.

해풍을 맞고 자란 덕분에 육질의 감칠맛이 남다른 양양 한우에 양양의 대표 특산물인 자연산 송이를 함께 곁들여 먹으면 산해진미가 부럽지 않은 맛이 완성된다.

책 이야기

나는 이 원수 놈의 물건 때문에 대제학을 하지 못한다...

왕의 딸을 중궁소생이면 공주, 후궁 소생이면 옹주로 품계가 없는 무품계의 상위 왕족입니다. 이런 높은 신분의 여성을 부인으로 둔 사람을 흔히, 부마(駙馬)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 조선은 519년동안 27명의 왕이 계승한 장수왕조로 이 태조의 장녀 경신공주부터 고종황제의 고명딸 덕혜옹주까지 92명의 사위 즉 부마가 존재했습니다.

품계를 줄수 없는 귀한 신분인 왕의 딸, 그녀와 결혼한 이유로 살아야만 했던 그들의 삶을 통해 조선의 정치를 가늠케 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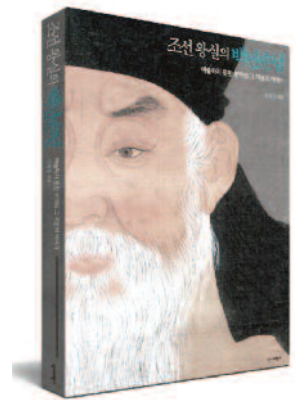
부마는 왕실과 사돈을 맺는 관계가 되므로, 당시의 명문가 출신으로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종때 ‘경국대전’이 반포된 이후부터 이들에게는 큰 난관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것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큰 목표였던 ‘과거 응시’의 기회가 박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조선중기부터는 부마로 간택되는 것을 꺼리는 풍조가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의 형태로 권력에 붙거나 초월하거나 조력자로서 부마의 존재를 각인시키게 됩니다.

성종의 딸인 휘숙옹주와 결혼하여 풍원위로 봉해진 임송재는 매부인 연산군에게 전국의 미녀를 바치는 일을 담당하여 중종반정의 원인을 제공하기도했고, 아버지 영조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고 동생 사도세자를 아꼈다고 전해지는 화평옹주의 남편 금성위 박명원은 조카 정조의 개혁정치를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부마와 가문을 살펴보면서 조선시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성종의 부마인 임송재의 아버지 임사홍은 효령대군의 손녀사

조선왕실의 백년손님/신채용
지음/역사와 비평사/2017



더불어 읽으면 좋은[冊]

- 왕으로 산다는 것
신병주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2017
- 청나라 제국의 황제들
옌 총이엔 지음, 산수야, 2017
- 누가 조선의 영의정인가
이원준 지음, 이가출판사, 2017

위이고, 임송재의 형 임광재는 예종의 사위이며, 선조의 사위 신익성의 사돈 김육의 손녀가 현종의 부인 명성왕후이고, 영조의 부마 박명원의 5대조부가 선조의 부마였습니다.

‘나는 이 원수 놈의 물건 때문에 대제학을 하지 못한다’

어느날 선조의 딸 정숙옹주의 남편 동양위 신익성이 옥관자가 붙은 망건을 아내 앞에 던지면서 한 말입니다.

학문이 뛰어나도 쓸 곳이 없고, 재능이 뛰어나도 펼칠 곳이 없다는 왕의 사위 ‘부마’, 그러나 왕의 최측근에서 정치에 음양으로 깊숙이 관여하며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했던 그들 속으로 이 책은 독자들을 안내합니다.

(양양교육도서관 사서 황언중)

사서가 추천하는 이달의 [신간]



중국 그들이 기억하는 100년의 역사

홍윤표 지음/렛츠북/2017

청조의 붕괴로부터 개혁개방시대까지, 지난 100년의 중국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우리나라와 무척이나 긴 인연을 끈을 이어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지나는 세기적 오점과 개혁과 혁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시바견 곤 이야기

가게야마 나ومی 지음, 김수현 옮김/
한겨레 출판/2017

다양한 반려동물이 우리와 함께 생활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생활하는 동물을 꼽자면 개와 고양이가 아닐까요? 이 책의 저자가 키우고 있는 시바견 두 마리가 있습니다. 작가와 함께 사는 시바견 곤의 순간순간 표정을 귀엽게 그려내고 있는 4컷 만화와 함께 실려있습니다.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11월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도시과
TEL. 033)670-2289
FAX. 033)670-2303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11월 추천 일자리

양양군 여성회관 2층
TEL. 033)670-2890~3
FAX. 033)670-2456

사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낙산스위트호텔	1명	조리사(주방장)	1일8시간	연3,000만원
	1명	프론트사무원	교대근무	연2,000만원 이상
(주)한샘개발 낙산비치호텔	2명	룸메이드	09:00~18:00 (주6일)	월185만원
열방세이피아파트	1명	경비원	2교대 (격일근무)	월150만원
양양할인마트	2명	캐셔	14:00~23:00 18:00~23:00	시급6,470원 (협의)
월드비치여관	1명	룸메이드	10:00~18:00	월160만원 (식대별도)
꼬띠에르펜션	1명	룸메이드	10:00~15:00	월120만원 (교통비별도)
세영실업	1명	배송운전원	08:00~18:00 (수요일 휴무)	월200만원이상
설악환경산업	1명	영업직	08:00~17:00 (격주5일)	월200만원이상 (수당별도)
	1명	덤프트럭운전원	08:00~17:00 (격주5일)	월230만원
굿앤굿스마트 (솔비치점)	2명	매장관리직	3교대	월170만원이상 (협의)
양양수산	5명	홍게생산직	08:00~19:00 (주5일)	시급6,470원
노인요양원 성산사랑마을	1명	요양보호사	24시간근무후 2일휴무	월161만원
	1명	조리원	교대근무	월161만원

사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거상에프앤비	1	생산직	주40시간 08:30~17:30	월 135만원이상
녹원갈비	2	출서빙원	월2회휴무 09:30~21:30	월 160만원이상
	1	주방보조원	월2회휴무 09:30~21:30	월 160만원이상
일양종합금속(주)	1	광고 디자이너	주5일 09:00~18:00	월 150만원이상
	1	용접원	주6일 09:00~18:00	월 250만원 이상
	1	경리사무원(건설)	주5일 09:00~18:00	월 150만원이상
K유통	1	상품진열원	주6일 09:00~18:00	월 140만원이상
강원송이산영농조합법인	2	생산직	주5일 09:00~18:00	월 136만원이상
희망실버하우스	1	요양보호사	주40시간	월 170만원이상
양양청년회의소	1	사무원	주5일 10:00~16:00	월 70만원
베리트 펜션	1	룸메이드	주2일 09:30~16:00	일급 8만원
골든에스앤씨	5	룸메이드	주6일 08:00~18:00	월 200만원 이상
	5	웨이터,웨이츄리스	2교대근무 6시~15시/11시~22시	월 200만원 이상

▶ 양양군 일자리지원센터와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수시로 구인, 구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이달의 추천 일자리는 2017년 11월 15일 기준 구인정보이며, 업체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2017 문화활동강좌 전시·연주

보go, 듣go, 즐기go “함께해요 도서관 축제”

전시	❖ 일 시: 2017. 12. 8.(금) ~ 12.10.(일) ❖ 내 용: 문화활동강좌·동아리 활동 작품 145점 ❖ 장 소: 도서관 1·2층 로비
연주	❖ 일 시: 2017. 12. 9.(토) 10:00~10:30 ❖ 연 주 자: 우쿨렐레 동아리 회원 ❖ 연주장소: 1층 로비 ❖ 연 주 곡 • 장미 •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 리듬 오브 더 레인

양양 - 제주 스케줄 안내		예약 및 문의 1588-2682
2017년 12월	2018년 1월	
일	일	
양양발 8:50	양양발 9:00	
제주발 11:10	제주발 11:00	
월	월	
양양발 13:30	양양발 13:30	
제주발 15:30	제주발 15:30	
화	화	
양양발 14:35	양양발 14:35	
제주발 16:35	제주발 16:35	
수	수	
양양발 13:30	양양발 13:30	
제주발 16:35	제주발 15:30	
목	목	
양양발 16:10	양양발 16:10	
제주발 18:05	제주발 18:05	
금	금	
양양발 10:35	양양발 10:30	
제주발 12:35	제주발 12:30	
토	토	
양양발 14:35	양양발 14:35	
제주발 16:35	제주발 16:35	

* 운항스케줄은 항공사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예약 : 인터넷 및 전화예약 가능합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 아쿠아리움 할인! 양양군 자매도시(서울 송파구) 할인혜택 안내

□대 상 : 양양군민 본인 + 동반 3인

□할인가간 : 2017. 3. 1 ~ 2018. 2. 28

□할인방법 : 거주지(양양군) 확인 가능한 신분증 제시

□우대율

구 분			정상가	성 수 기		비 수 기	
				우대가	할인율	우대가	할인율
어드벤처	주 간 (09:30~)	어른	52,000	31,200	40%	26,000	50%
		청소년	45,000	27,000		22,500	
		어린이	41,000	24,600		20,500	
	야 간 (16:00~)	어른	41,000	24,600		20,500	
		청소년	36,000	21,600		18,000	
		어린이	32,000	19,200		16,000	
아쿠아리움		어른	29,000	23,200	20%	23,200	20%
		청소년	27,000	21,600		21,600	
		어린이	25,000	20,000		20,000	

※ 성수기: 하절기 2017년 7~8월 / 동절기 2017.12월~2018년 2월

※ 성수기: 하절기 2017년 7~8월 / 동절기 2017.12월~2018년 2월

12월 자동차세 납부 납부의 달입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에게 6월과 12월에 부과하며, 지방교육세가 1장의 고지서에 함께 고지됩니다.

□ 과세표준(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기준)

배기량	1,000cc이하	1,600cc이하	1,600cc초과
cc당 세액	80원	140원	200원

※ 영업용 및 그 밖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3륜 이하 소형차의 세율은 고지서를 참조 바라며, 개인별로 차종, 년식에 따라 세액이 상이함으로 자세한 세액은 문의(☎033-670-2107)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자동차세와 함께 부과합니다.

□ 과세기간(제2기분) : 7월 ~ 12월

□ 납부기간 : 2017. 12. 16 ~ 12. 31

□ 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수납 시스템
-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현금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 민원실에서 신용카드 납부

□ 문 의 :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033-670-2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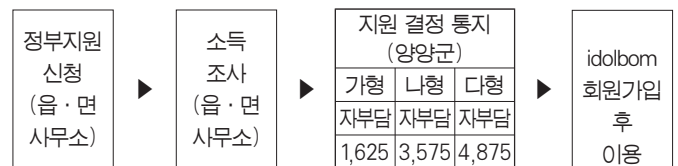
아이가 아플 때 마다 당황하셨지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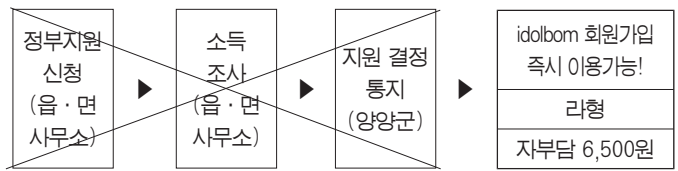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서비스로, 공휴일, 야간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방법

- 정부지원 가구



- 정부미지원 가구 (본인부담)



☆ 질병특별지원 ☆

아이가 질병에 걸려 등원 하지 못 할 때 자부담 3,900원

□이용문의

☎033) 670. 2816 / www. idolbom.go.kr

-양양군 양양읍 안산1길 36, 여성회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연장운영 안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법률 제14710호로 제정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시행기간 : 2012.5.23.~2020.5.22.

□ 분할대상 토지

- 공유토지(2인 이상 공동 소유의 토지)로써
- 공유자 총수의 3분의1이상이 그지상에 건물을 소유해야하고,
-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 수혜사항

- 공유지분 분할 등기 촉탁
- 건축법(건폐율 미만 분할소면적(60㎡ 미만)분할) 등 토지 분할 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함.

이번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를 분할함으로써 개인별로 필지를 소유하게 되어 보다 편리하게 토지소유권 행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 문의전화 : 허가민원과 지적부서 (☎670-2156)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위택스 전자신고 납부가능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대 상 : 근로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10%
- 납세자 : 원천징수하는 자
- 납 기 : 지급월 다음달 10일

□ 위택스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하기

- 위택스접속(www.wetax.go.kr)
- 공인인증서 등록 및 비회원 납부가능
- ⇒ 세무대리인이 인터넷신고시 위택스 조회·납부

□ 문의전화 : 양양군청 부과부서 (☎672-2786)

A(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 예방수칙!!

1.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방문 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2. 야생조류, 가금류, 고양이 등 사체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십시오.
3.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세요.
4.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쓰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세요.
5. 국내외 A유행지역에서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발생 시 보건소 또는 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6. A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을 삼가주세요.

정치후원금?

카드포인트로
기부하고,
좋은 정치로
돌려받으세요



연간 소멸되는 포인트
1,300억원

포인트 기부방법



정치후원금센터에서
카드포인트로 기부가능

[포인트 기부 가능 카드사]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 신한카드·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 가능



소화가 빠른 안전상비약

소화기는 화재발생 초기 소방차와 맞먹는
효력을 가진 우리 생활안전의 필수품입니다!
화재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지켜주는 빠르고 안전한 약,
소화기 설치에 동참해주세요.

소방청

FSA 한국소방안전협회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신고해주세요!

특별신고기간 운영 **11.1.~12.30.**

신고 상담 **국민콜 110 또는 1398**

신고대상 예시

- 승진·채용 등 인사청탁
- 서류·면접결과 조작
-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 인사 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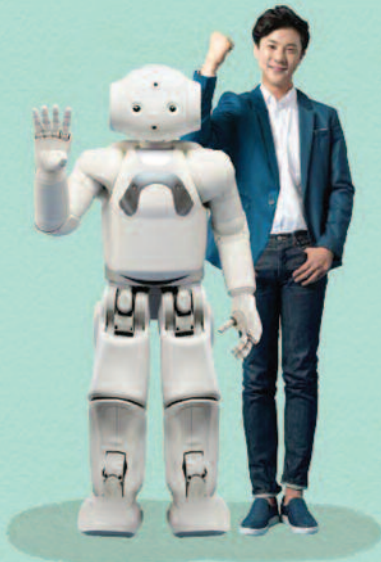
클릭하시면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로
이동합니다



희망2018나눔캠페인

(2017.11.20 ~ 2018.01.31) 73일간

기난의 대물림을 끊는
나눔의 새로운 길
사랑의열매가 시작했습니다



사랑의열매는 14~24세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진로지원을 돕는 '희망플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금주 : 강원도공동모금회>

▶ 농 협 203-01-448497

▶ 신 한 100-013-455552

▶ 우 체 국 200022-01-003311

▶ 국 민 301-01-0614-463

▶ S C 625-10-013042

▶ 기 업 126-029311-01-010

▶ 하 나 792-810011-57105

▶ 우 리 027-156845-01-101

기부문의 ☎ 033-244-1662